

정진택 총장 인터뷰

“고려대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택 총장은 본교 구성원들에게 ‘같이의 가치’를 강조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에서,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할지로, 나아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로 관심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년 취임한 정진택 총장의 임기가 어느덧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다.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정진택 총장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교를 이끌어 온 정진택 총장. 코로나19의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현재, 임기의 마지막 학기를 앞둔 정 총장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 새 학기를 맞이하시는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 교내 아카펠라 동아리인 로그스(Logs)를 불렀습니다. 당시 故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를 부탁했습니다. 그 가사에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제 소감도 노래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지난 학기보다 이번 학기가 더 자유로운 환경이 될 것 같아 설렘을 느낍니다. 정기 고연전과 같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려움은 변화와 혁신을 모두가 도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 학기에도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다음 학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 학기에 대한 특별한 목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의 단편에 불과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에 추진하는 것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통일융합연구원과 고려사회연구원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민족의 염원이고,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해 그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대학 통일연구원에서 하는 사회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문학, 보건학, 의학, 공학 등에서 융복합적 연구가 이뤄질 것입니다. 고려사회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고려사회는 다가를 미래가 아닌, 이미 직면하고 있는 현재라는 점입니다.

3년 뒤면, 우리는 개교 1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교 60주년 기념식에서 유진오 전 총장님은 ‘지나간 60년 동안의 우리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굴욕과 눈물과 고난의 역사였다. 서기 2025년에 찾아올 고려대학교의 두 번째 회갑의 날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을 새 역사의 시발점으로 삼을 결심을 굳게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회갑의 날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120주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가 이번 2학기에 설치돼 활동할 예정입니다.”

- 임기 동안 가장 중시한 현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총장에 도전한 2018년 가을 당시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90년생이 온다>였습니다.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이 입사해 기존의 조직을 흔듭니다. 제가 총장 임기를 시작한 2019년에 입학한 신입생은 2000년에 태어난 학생들입니다. 기업에서는 조직 문화를 흔드는 90년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했다면, 우리 대학은 더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육 방법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변화점,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신기술인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AI(인공지능)가 우리 캠퍼스의 교육과 행정에 접목돼야 합니다. 교육과 행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정리 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앞으로의 정책을 입안할 때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응해 추진하는 정책이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 캠퍼스’라는 표현은 이미 유수의 해외 대학들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참여형’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의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에는 고려대학교 통합 앱이 완성돼 공개될 것입니다. 학교 내는 물론이고, 참살이길과 안암동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교만의 KU페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대응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고, 협조해서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불가능했을 온라인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강의를 사용한 것을 넘어, 우리의 선택권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 발전 자금 유치에 노력을 기했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는 쉽지 않고, 재단 지원도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비에 의한 간접비도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총장이 연구비나 발전 기금을 따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술 산업화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 취임 당시 강조하신 ‘사람’ 중심의 대학을 위해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제가 총장을 준비할 당시 내세웠던 슬로건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의 고려대학교’, 영어로는 ‘Human KU creating new values’입니다. 우리 학교를 지금까지 발전시켰고 현재와 미래에도 발전을 위해 애쓰는 자산은 구성원, 즉 사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죠.

카카오 설립자인 김범수 의장은 일은 사람이나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닌 ‘문화’가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김 의장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서로가 끈끈해지기 위해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죠. 이를 위해 취임 첫날,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1000원의 아침 식사를 함께했으며, 총학생회를 방문해 생각을 나눴습니다. 학교 정문 경비원, 세콰 관계자 등과 티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본관 뒤쪽 건물에 교직원들을 위한 휴게실도 만들었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는 교내 미화원분들의 휴게실을 돌며, 감사표지를 하고 고대뽕을 드렸습니다. 고대문화 발전을 위해 총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한 것 같습니다.”

-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고려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20년 전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어떤 기업으로 가는 게 좋을지 묻는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미래에 유망할지 궁금해한 것이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도 미래이기 때문에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령 인구 감소처럼 가시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좋은 졸업생들을 배출했다는 점만으로 명문 대학이라는 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변곡점마다 고려대가 한 역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이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4년제 대학, 즉 학사 학위를 주는 대학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었지만, 현재 빅테크 기업 등에서는 이미 대학 학위가 아닌 능력과 실력을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나라 역시 그 방향으

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역할은 ‘학위 수여’에서 ‘평생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평생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인 필요성 혹은 지식 탐구의 욕구에 의한 평생교육을 의미합니다. 학위를 받는 것이면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평생교육은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는 교육적인 측면이고 연구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4월, 본교에도 ESG 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사회에서 유행하니까 우리도 신경 쓰자’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UN의 많은 전문가가 오랜 기간 고민해서 내놓은 17개 목표를 SDGs(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SDGs가 무슨 의미이고, 무엇이 해당하는지를 알고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본교는 ESG 경영과 실천을 통해 연구, 교육, 사회공헌, 행정, 정책, 시스템,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스스로 유도해 새로운 발전 아젠다와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할 사회혁신가를 양성하는 한편, 이를 꾸준히 실행해 바람직한 사회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본교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졸업한 다음,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어떻게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에서, 우리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할지로, 나아가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친구는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때, 친구는 경쟁자에서 동료로 변합니다.

관심사를 넓히는 방법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양한 수업을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외, 봉사, 동아리 경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고민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가졌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때,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글 | 이원호 편집국장 onelike@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